

---

**2020 달서구교통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

2020. 1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 || 목 차 ||

I. 연구배경 및 목적 .....	1
II. 연구개요 .....	4
1. 연구 단체 구성 .....	5
2. 연구범위 .....	6
3. 연구방법 및 추진계획 .....	6
III. 세부추진내용 .....	8
1. 1차 모임: 연구방향 논의 및 자료준비 .....	9
2. 2차 모임: 현장 확인을 위한 학교앞 자원봉사 .....	10
3. 3차 모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17
4. 4차 모임: 연구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토론회 .....	18
5. 5차 모임: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	22
6. 6차 모임: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분석 간담회 .....	33
7. 7차 모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45
8. 8차 모임: 조례 제개정 간담회 및 발의 .....	52
9. 9차 모임: 현장 확인을 위한 학교앞 자원봉사 .....	55
10. 10차 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63
11. 11차 모임: 본회의 연구용역 결과발표 .....	70

# || 목 차 ||

<b>IV. 활동관련자료 .....</b>	<b>71</b>
부록1. 교통연구회 언론보도자료 .....	72
부록2. 용역기관 연구보고서 .....	77
부록3. 관내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및 미비점 .....	78
부록4. 간담회를 통한 교통관련 정책 서면질의 및 답변 ..	80
부록5. 연구단체 활동을 마치며 .....	84
부록6. 경비집행내역 .....	101

---

# **I . 연구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

- ☐ 민식이법에 대해 찬반 논란은 있지만,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하며, 특히 학교 등·하교에 있어 스쿨존에선 더욱더 아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함.
- ☐ 특히,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사항이자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파급효과가 큼.
- ☐ 이를 위해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달서구 실정에 적합한 교통정책에 대해 연구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2. 연구 목적

---

- ☐ 「달서구교통연구회」는 달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정책을 논의하여 의원들의 교통정책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Ⅱ . 연구 개요

---

# 1. 연구단체 구성

## □ 단체명: 달서구교통연구회

	<p><b>이신자 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단체 대표</li><li>- 단체업무 총괄</li><li>-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li></ul>		<p><b>김귀화 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단체 간사</li><li>- 단체사무업무</li><li>- 기획행정위원회 위원</li></ul>	
	<p><b>박왕규 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단체 위원</li><li>- 자원봉사 업무</li><li>- 문화복지위원회 위원</li></ul>		<p><b>박종길 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단체 위원</li><li>- 현장견학 업무</li><li>- 경제도시위원회 위원</li></ul>	
	<p><b>박재형 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단체 대표</li><li>- 용역업체 관리</li><li>-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li></ul>		<p><b>서민우 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단체 대표</li><li>- 토론회 업무</li><li>- 경제도시위원회 위원</li></ul>	
	<p><b>이영빈 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단체 대표</li><li>- 조례연구</li><li>- 문화복지위원회 위원</li></ul>	<p><b>의회사무국 담당직원</b></p>		<p><b>전문위원 전 역 희</b></p>
			<p><b>사무처리 류 명 희</b></p>	

## 2. 연구 범위

---

- ☐ 달서구 교통정책의 현황 진단
- ☐ 달서구 교통관련 조례 파악 및 교통예산 집행 현황 비교 분석
- ☐ 타 지자체 교통정책 현황 파악 및 달서구 교통 정책 비교분석
- ☐ 우수 교통조례 발굴 및 조례활성화 방안 논의
- ☐ 교통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3. 연구방법 및 추진계획

---

- ☐ 연구방향 논의 및 자료준비 간담회
- ☐ 현장확인을 위한 학교 앞 교통 자원봉사
- ☐ 연구용역기관과의 간담회 및 착수 · 중간 · 결과보고회
- ☐ 주민과의 교통정책 토론회
-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 현황 파악
- ☐ 우수 교통조례 발굴 및 조례 제 · 개정

## □ 추진계획

진 도 지 표		2020년						
구분	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간담회	연구위원 연구방향 논의	계약	용역기간: 3개월					
자원봉사	어린이교통시설 현장확인을 위한 학교 앞 자원봉사		8.18					
보고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8.19					
토론회	연구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토론회		8.19					
견학	벤치마킹을 위한 교통관련기관 현장 견학		8.24					
간담회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분석 간담회			9.16				
보고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9.23				
조례	조례 제개정을 위한 간담회 및 발의				10.6			
자원봉사	어린이교통시설 현장확인을 위한 학교 앞 자원봉사				10.22			
보고회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					11.16		
소감문제출	연구용역 활동 소감문 제출						12.07	
운영위원회 보고	운영위원회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12.16	
발표	본회의장 활동결과 발표						12.21	

---

## Ⅲ . 세부 추진내용

---

## 1. 1차 모임: 연구방향 논의 및 자료준비

### □ 달서구교통연구회 간담회

- 일 시: 2020. 8. 6.(목) 11:00
- 장 소: 구의회 대회의실
- 참석의원: 이신자, 김귀화, 박종길, 서민우, 이영빈  
불참의원: 박재형, 박왕규
- 내 용
  - 연구위원 업무분장
  - 연구방향 및 계획 논의
  - 자료준비 방법 논의
  - 용역업체 요구사항 논의

간담회 운영



## 2. 2차 모임: 현장 확인을 위한 학교 앞 자원봉사

---

### □ 달서구교통연구회 자원봉사

- 일 시: 2020. 8. 18.(화) 07:30
- 장 소: 대구성지초등학교 앞
- 참석의원: 이신자, 김귀화, 박재형, 서민우, 이영빈  
불참의원: 박종길, 박왕규
- 내 용
  - 구체적인 현장 상황 체험
  - 어린이들과 운전자의 상황별 행동 패턴 파악
  - 현장 주민의견 청취
  - 교통안내 자원봉사

# 연구단체 자원봉사 추진계획

달서구교통연구회의 효과적인 연구용역 진행의 과정으로 학교 앞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통한 현장 어린이보호 교통시설 및 어린이 체감 현황을 현장파악 하여 달서구 교통정책 및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

## I 자원봉사 개요

☐ 일 시: 2020. 8. 18.(화) 07:40 ~ 10:30

☐ 자원봉사장소

○ 대구성지초등학교 주변

☐ 인 원: 7명

○ 달서구교통연구회 의원(7명)

- 이신자, 김귀화, 박재형, 서민우, 박왕규, 박종길, 이영빈 의원

## II 세부추진내역

☐ 자원봉사 내용

- 위치: 대구 달서구 새동네로 27
- 민식이법 등에 대한 고찰 및 달서구교통정책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달서구 교통시설의 현장 확인이 우선 과제로 논의되어
- 어린이들이 느끼는 교통안전과 관련시설물의 현황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굣길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 단순한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설치된 교통시설과 제도의 효용성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함.

자원봉사 활동 참고사진



#### ☐ 일정표

일 자	시 간	일 정 내 용	비 고
8. 18. (화)	07:40 ~ 08:00 (20분)	집합 및 봉사 교육	
	08:00 ~ 10:00 (2시간)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자원봉사 및 현장 어린이 교통시설 파악	
	10:00 ~ 10:30 (30분)	구청복귀	이동

※ 당일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 소요예산: 해당없음

### III 행정사항

- ☐ 현장 관계학교 사전 협조 요청
- ☐ 준비물: 의회홍보물 및 방문기념품 준비, 직원사진촬영 지원
- ☐ 참여자 자원봉사 실적 신청

# 연구단체 자원봉사 결과보고

달서구교통연구회의 효과적인 연구용역 진행의 과정으로 학교 앞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통한 현장 어린이보호 교통시설 및 어린이 체감 현황을 현장파악 하여 달서구 교통정책 및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

## I 자원봉사 개요

☐ 일 시: 2020. 8. 18.(화) 07:30 ~ 09:50

☐ 자원봉사장소

○ 대구성지초등학교 주변

☐ 인 원: 5명

○ 달서구교통연구회 의원

- 이신자, 김귀화, 박재형, 서민우, 이영빈 의원

## II 세부추진내역

☐ 일정표

일 자	시 간	일 정 내 용	비 고
8. 18. (화)	07:30 ~ 07:40 (10분)	집합 및 봉사 교육	
	07:40 ~ 09:30 (1시간 50분)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자원봉사 및 현장 어린이 교통시설 파악	
	09:30 ~ 09:50 (20분)	구청복귀	이동

## □ 자원봉사 내용

- 위치: 대구 달서구 새동네로 27
- 민식이법 등에 대한 고찰 및 달서구교통정책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달서구 교통시설의 현장 확인이 우선 과제로 논의되어
- 어린이들이 느끼는 교통안전과 관련시설물의 현황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굣길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 단순한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설치된 교통시설과 제도의 효용성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함.

자원봉사 활동 사진



## □ 자원봉사를 마치고

이신자 의원



- 먼저, 코로나때문에 한창 즐겁게 추억을 쌓을 여름방학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안타까웠음. 달서구에서 처음 설치된 바닥 신호등 실물은 특히 야간 보행활동에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됨.

- 깔끔하게 설치된 바닥 신호등과 주변의 포근한 분위기가 더더욱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음. 단순히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주변 거리, 공원, 도로 등 모든 환경이 안전한 교통정책의 바탕이 됨을 확인함.

김귀화 의원



박재형 의원



- 바닥 신호등도 기계적 설비에 속함. 고장나지 않고 오래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며, 안전울타리처럼 차도와 인도의 확실한 분리가 어린이 안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물리적 환경 조성이라 생각 됨.

서민우 의원



- 자원봉사 활동을 직접 해보니 녹색어머니회와 학교보안관 활동이 어린이들의 등굣길을 보호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음. 시간이 집중되어 있는 등굣길은 보호 활동이 정착화 되어 있는데, 시간이 분산되어 있고, 각종 학원 차량과 일반 차량이 더 엉켜있는 하굣길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음.

- 어린이 교통안전은 단순히 학교나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님. 실제로 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청, 구청, 시청, 경찰서 등 모든 관공서가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여 이런 시책들이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것 같음. 가령 성지초에서 운영하는 안전 체험교실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청에서 설치한 바닥 신호등, 거리 조명, 과속방지턱,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체계 등 여러기관이 협의하고 조율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됨.

이영빈 의원



### 3. 3차 모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 달서구교통연구회 보고회

- 일 시: 2020. 8. 19.(수) 10:00
- 장 소: 구의회 대회의실
- 참석자: 이신자, 김귀화, 서민우, 박재형, 용역업체 연구책임자,  
전문위원, 담당직원

불참의원: 박종길, 박왕규, 이영빈

#### ○ 내 용

- 용역 과업지시서 설명 및 요청사항
- 용역업체 학술용역사업계획 설명
- 진행과정 요청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확인 등

용역업체 착수보고회



## 4. 4차 모임: 연구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토론회

### □ 달서구교통연구회 토론회

- 일 시: 2020. 8. 19.(수) 10:30
- 장 소: 구의회 대회의실
- 참석자: 이신자, 김귀화, 서민우, 박재형, 이영빈 주민,

교통정책전문가, 담당직원

불참의원: 박종길, 박왕규,

### ○ 내 용

- 전문가의 현 어린이 교통정책 설명 및 문제점 브리핑
-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
- 주민의견 반영된 연구과제 보완사항 논의

교통안전 토론회



○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김귀화, 이신자	직 위 : 의 원				
	소 속 : 달서구의회	연락처	:			
		010-8009-2112				
행 사 명	어린이교통안전 정책 토론회 (첫번째 이야기: 우리아이들을 지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목 적	어린이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일시/장소	2020. 8. 19. 10:30 달서구의회 대회의실	참석인원	20명 정도			
기대효과	어린이교통안전 문화 정착 공감대 형성					
<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 -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 현주소 - 현재 실천 중인 여러 개선방안 및 정책의 효과분석 -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교통안전 인식 재전환						
첨부서류 : 토론회 추진계획 1부						

2020년 8월 5일

신청인 : 의원 김귀화, 이신자 서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귀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  
(첫번째 이야기: 우리아이들을 지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토론회 추진 계획

▷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달서구의 다양한 교통정책에 관한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과 교통안전 문화 정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I 추진개요

- 일시/장소: 2020. 8. 19.(수) 10:30 / 달서구의회 대회의실(2층)
- 참석대상: 20명 정도 (구의원,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
  - ▶ 토론주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
    - ◆ 토론자: 어린이 교통 학부모 10명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계명대학교 법학과교수 김종세  
(주)경동 대표이사 곽충보(교통시설용품 생산 중소기업)
- 주최/주관: 달서구의회 / 교통연구회 이신자, 김귀화 의원
- 주요내용
  -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 현주소
  - 현재 실천 중인 여러 개선방안 및 정책의 효과분석
  -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교통안전 인식 재전환

## II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0:35	- 등록 & 안내	사무국
10:35~10:40	- 개회 & 참석자 소개	진행 (좌장: 이신자 의원 사회: 김귀화 의원)
10:40~11:00	- 달서구 교통정책 및 사업 소개	
11:00~11:50	- 토론 & 질의·응답	
11:50~12:00	- 폐회 & 기념촬영	

### 교통안전 토론회 언론보도자료

**강성매일신문**

뉴스 > 정치/행정

#### 달서구의회,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 개최

김영식 기자 - 달서구의회가 19일 오후 2시에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달서구의회 제공



[강성매일신문=김영식기자] 달서구의회가 19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스**

주요뉴스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세계 IT

####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

달서구의회가 19일 오후 2시에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NEWS1



[대구=뉴스1]이진영 기자 = 달서구의회가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달서구의회 제공) 2020.08.19. photo@news1.com

#### ◇달서구의회,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토론회 개최

대구 달서구의회는 19일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달서구의 교통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교통안전의 현주소 ▲개선방안 및 정책의 효과분석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인식 재전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자체연구단체인 교통연구회 의원들이 주관했으며 교수, 기업 대표이사, 구청 관계자, 관내 7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원장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 5. 5차 모임: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견학

---

### □ 달서구교통연구회 현장견학

- 일 시: 2020. 8. 24.(월) 08:40
- 장 소: 대구어린이교통랜드, 대구교통정보서비스센터
- 참석자: 김귀화, 이신자, 박종길

불참의원: 박왕규, 박재형, 서민우, 이영빈

### ○ 내 용

- 현장견학을 통한 우리시 교통교육 사례 파악
- 대구교통정보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하여 현 우리시 전체적인 교통 흐름과, 교통정책 방향 파악
- 대구시의 교통정책에 따른 달서구의 정책 방향

# 교통관련 현장견학 추진계획

달서구 교통현황의 효과적인 비교분석 과정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우수 사례를 현장견학하여 달서구 교통정책 및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

## I 견학개요

☐ 일 시: 2020. 8. 24.(월) 08:30 ~ 14:00

☐ 견학지(현장)

- 대구어린이교통랜드
- 대구교통정보서비스센터

☐ 인 원: 7명

○ 달서구의원(7명)

- 이신자, 김귀화, 박재형, 서민우, 박왕규, 박종길, 이영빈 의원

## II 세부추진내역



☐ 견학내용

○ 대구어린이교통랜드

- 위치: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76
- 규모: 부지면적 4,958m<sup>2</sup>, 건물면적 1,504m<sup>2</sup>
- 2004년 계획되어 2006년 개장한 수성구 소재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배우는 흥미있는 체험의 장, 부모와 함께 가족이 함께 하는 교육문화의 장, 새로운

교통안전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의 장을 목표로 어린이들이 만드는 교통안전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시물과 영상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과 예방법을 교육하고 있음.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그 효과와 장단점, 교통정책 적용방안 등을 파악하고자 함.

실내교육장	실외교육장
	

### ○ 대구교통정보서비스센터

- 위치: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대구지방경찰청 內)
- 노변기지국, CCTV, 돔카메라, 승용차요일제, 버스운행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지·정체와 사고, 도로상황, 통행시간, 우회도로 등의 유익한 정보로 가공하여 대구 시민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대구지역의 교통정보 총괄 센터로,
- 버스운행정보, 교통량, 통행속도, 돌발상황 등 교통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 정체구간 해소와 돌발상황 대응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며, 집적된 교통정보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

- 현시점에서 교통정보와 스마트시티 진행과의 연계 및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이 적용된 현장의 효과와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스마트시티구축과 교통정보시스템, 어린이교통안전의 연결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달서구청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 기사 - 대구일보

대구 달서구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지원받는다  
고 21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망과 방범·교통·재난망 등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  
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공모 사업으로 방범·교통·복지·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  
제 해결을 위한 시조가 됐다"며 "스마트 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일정표

일 자	시 간	일 정 내 용	비 고
8.24.(월)	08:30 ~ 09:30 (1시간)	구청 → 어린이교통랜드	이동
	09:30 ~ 10:30 (1시간)	어린이교통랜드 견학	
	10:30 ~ 11:00 (30분)	어린이교통랜드 → 대구교통정보서비스센터	이동
	11:00 ~ 12:00 (1시간)	대구교통정보서비스센터 견학	
	12:00 ~ 13:00 (1시간)	중식	
	13:00 ~ 14:00 (1시간)	구청복귀	이동

※ 당일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해당없음

### Ⅲ 행정사항

- ☐ 방문예정기관 사전 협조 요청
- ☐ 준비물 : 의회 홍보물, 방문기념품(우산 등)
- ☐ 공용차량, 직원 지원

# 교통관련 현장견학 결과 보고서

달서구 교통현황의 효과적인 비교분석 과정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우수 사례를 현장견학하여 달서구 교통정책 및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

## I 견학개요

☐ 일 시: 2020. 8. 24.(월) 08:40 ~ 13:00

☐ 견학지(현장)

- 대구어린이교통랜드
- 대구교통정보서비스센터

☐ 인 원: 3명

- 달서구의원(3명)
  - 이신자, 김귀화, 박종길 의원

## II 견학내용

☐ 일정표

일 자	시 간	일 정 내 용	비 고
8.24.(월)	08:40 ~ 09:20 (40분)	구청 → 어린이교통랜드	이동
	09:20 ~ 10:10 (50분)	어린이교통랜드 견학	
	10:10 ~ 10:30 (20분)	어린이교통랜드 → 대구교통정보서비스센터	이동
	10:30 ~ 11:40 (1시간 10분)	대구교통정보서비스센터 견학	
	11:40 ~ 13:00 (1시간 20분)	중식 및 구청복귀	이동

## ◎ 대구어린이교통랜드

### □ 일반현황

- 위치: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76
- 규모: 부지면적 4,958m<sup>2</sup>, 건물면적 1,504m<sup>2</sup>
- 2004년 계획되어 2006년 개장한 수성구 소재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배우는 흥미있는 체험의 장, 부모와 함께 가족이 함께 하는 교육문화의 장, 새로운 교통안전 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의 장을 목표로 어린이들이 만드는 교통안전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시물과 영상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과 예방법을 교육하고 있음.
- 단체교육: 2018년 28,670명, 2019년 28,822명
- 연평균 5만명 정도의 개별관람과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안전 창작 그림공모전, 방문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견학 사진

야외교육장 입구



실내교육장 입구



## ◎ 대구교통정보서비스센터

### □ 일반현황

- 위치: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대구지방경찰청 內)
- 노변기지국, CCTV, 돔카메라, 승용차요일제, 버스운행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지·정체와 사고, 도로상황, 통행시간, 우회도로 등의 유익한 정보로 가공하여 대구시민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대구지역의 교통정보 총괄 센터로,
- 버스운행정보, 교통량, 통행속도, 돌발상황 등 교통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 정체구간 해소와 돌발상황 대응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며, 집적된 교통정보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
- 지방경찰청내에 위치하여 경찰청과의 업무적인 공조가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방송, 버스시스템 유지관리 등 관련 기관들이 한 건물에 위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 견학 관련 사진



## □ 견학을 마치고

-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인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은 현실에서도 편안히 맞이해주고,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 주신 방문 기관에 감사를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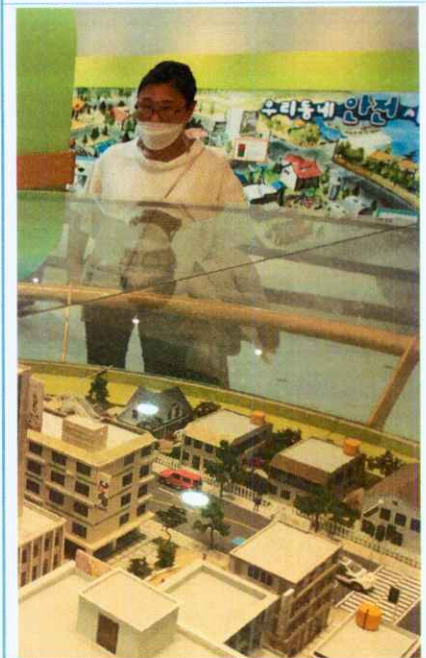
이신자 의원



- 어린이 교통교육시설을 직접 체험해 보니 유용하였고 아이들의 시선에 맞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참 다행스러웠음. 단지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었고, 달서구에서 멀다는 점이 달서구 의원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음.

- 대구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고, 어떤 시설, 어떤 제도보다도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  
좀 더 넓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고, 현재 교육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시설확충이 요구됨.  
달서구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당장 불가능하다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수 있도록 동네 공원이나 산책로 등 주변 편의시설과 어린이 교통교육이 접목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요구됨.

김귀화 의원



박종길 의원



- 어린이집, 유치원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장소라 하기에 방문 전에 기대가 컸음. 실내교육장은 흥미있고 깨끗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약간 좁았고, 외부 교육장은 낡고 파손된 위험요소들이 많았고, 좁았음. 다행히 달성군에 교육장이 새로 오픈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어, 지역에 가까운 교육장이 열린다는 소식이 약간의 위안이 되었음.

이신자 의원



- 대구의 모든 교통 정보를 총 망라한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견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우리가 쉽게 접하는 버스정보시스템, 네비게이션시스템, 핸드폰 교통정보, 라디오 교통정보 등 많은 자료들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첨단 시스템의 합작품임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음. 최첨단을 표방하는 시스템들이었지만,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끊임없는 재투자가 요구되었고, 24시간

관리를 해줘야 하고,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편리함에 따른 큰 투자가 필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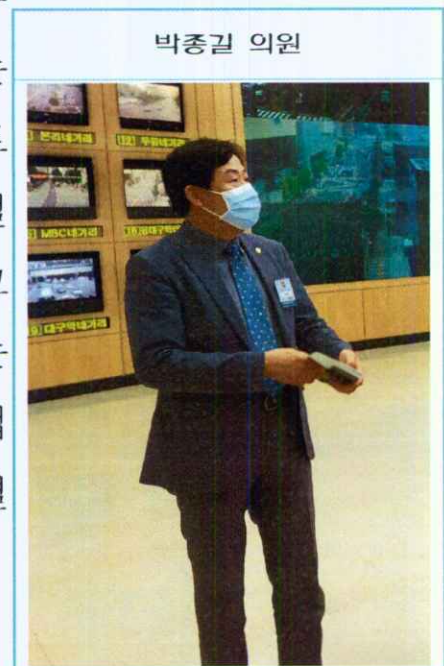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운행할 때 해당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았고, 실제 네비게이션을 통해 쉽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는 답변도 받았음.

-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추진중인 최첨단 사업중 하나로 돌발상황시스템과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차량감지기 등이 있음. 특히, 돌발상황시스템은 신천대로에 설치되어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실시간 전송되어 운전자와 관련기관에 통보됨.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해당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교통정보상황실이 리모델링 될 예정이라 하니, 새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많은 의원들과 직원들이 견학하여 실업무에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CCTV가 집중 투자되고 있는 상황임. 해당 CCTV는 속도단속 카메라로 대구시와 지방경찰청 합동 현장 조사로 설치 위치가 선정됨.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투자보다는 운전자는 기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집행기관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한다고 생각함.



-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입장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우선 국민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시설물은 최신보다 현실적인 검증을 통해 가성비도 확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6. 6차 모임: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분석 간담회

---

### □ 달서구교통연구회 간담회

○ 일 시: 2020. 9. 16.(수) 10:30

○ 장 소: 구의회 대회의실

○ 참석자: 이신자, 김귀화, 박재형, 서민우, 박종길, 이영빈

불참의원: 박왕규

○ 내 용

- 의원 개인별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여 현시점의 교통정책 및 제도를 파악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찾고,
- 토론내용과 의견을 바탕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서면질의

우리아이 교통안전 민식이법으로 충분할까요?

#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분석 간담회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분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

## I 간담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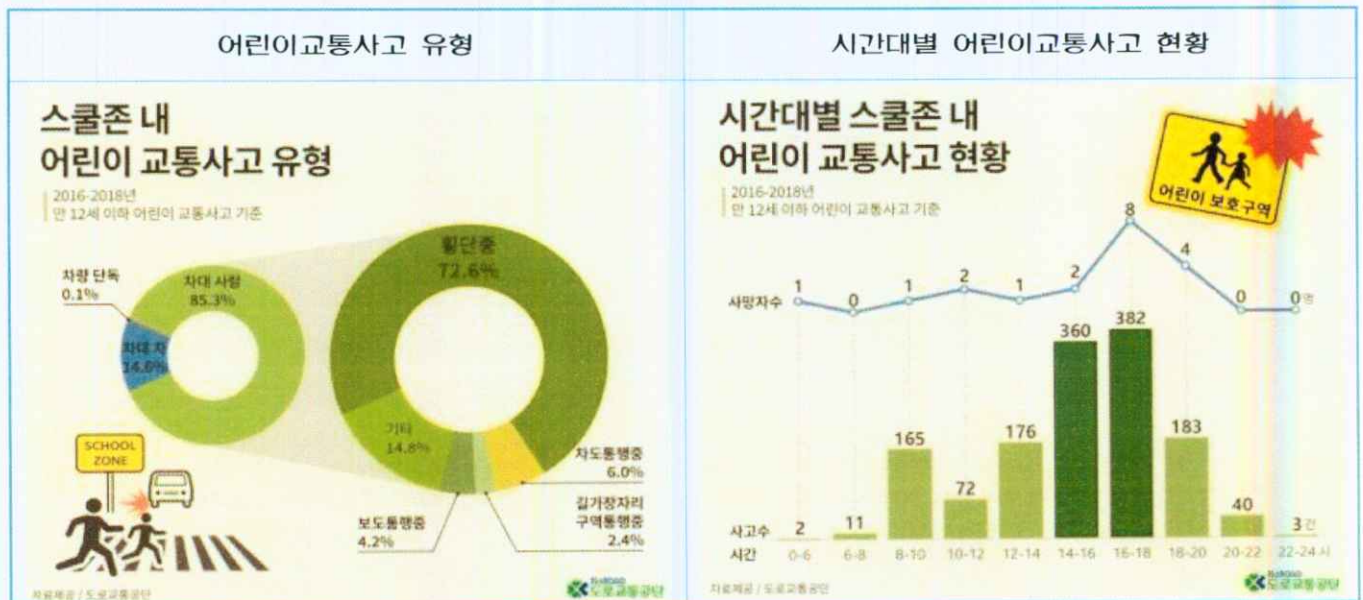
- ☐ 일 시: 2020. 9. 16.(수) 10:30 ~ 12:00
- ☐ 장 소: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
- ☐ 주 제: 우리아이 교통안전 민식이법으로 충분할까요?
- ☐ 인 원: 6명
  - 달서구의원(6명)
  - 이신자, 김귀화, 박재형, 서민우, 박종길, 이영빈의원(개인보고서제출)

## II 세부추진내역

- ☐ 간담회 내용
  - 의원 개인별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여 현시점의 교통정책 및 제도를 파악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찾고,
  - 토론내용과 의견을 바탕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서면질의

## 1.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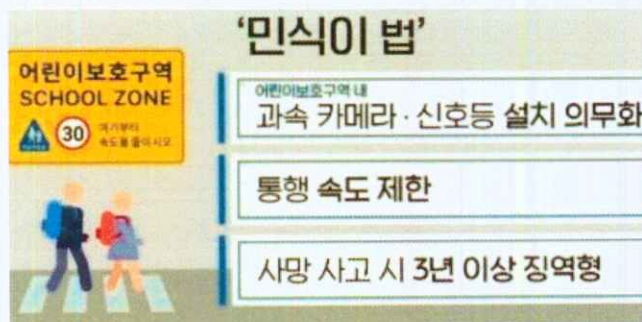
- 발 표 자: 김귀화 의원
- 발표내용: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사고유형 10가지를 발표 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토론하고자 함.
- 어린이교통사고 유형: 무단횡단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 주정차된 차량 사이 횡단사고, 갑자기 뛰어나오다 발생한 사고, 버스의 바로 앞뒤 횡단사고, 큰차가 회전하다가 나는 사고, 차 뒤의 밑에서 놀다 일어나는 사고, 보호장구 미장착으로 일어난 사고, 자전거와 킥보드 사고
-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어떤 안전대책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 알수 있음.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카시트, 보호헬멧 등 어린이보호장비 착용을 일상화하고,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 강화 등이 요구됨.
-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교육을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게 제도 정비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히 야간 대형화물차 단속 강화



## 2. 민식이법

- 발 표 자: 박종길 의원
- 발표내용: 민식이법에 따른 변화와 효과
- 2019년 충남아산에서 발생한 고 김민식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 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시속 30킬로 이하로 운영해야 하고, 이 속도를 위반한 경우 일반도로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됨.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 의무화 되고, 안전의무 부주의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중처벌 됨.
- 민식이법의 내용과 취지를 잘 홍보하고 교육하여 법규가 잘 지켜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함.
- 카메라설치·단속·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차별화 하여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지턱, 바닥표시 등의 시설도 함께 어우러져 운전자가 무의식중에 민식이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민식이법 시행



### 3. 어린이보호구역

- 발 표 자: 서민우 의원
- 발표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운영
-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학교, 학원 주변 등 어린이의 활동이 많은 구역에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 이내로 제한함이 주요 요지임.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청의 판단으로 구간별·시간대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주정차를 금지하고, 속도를 시속30킬로 이내로 제한하고,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2019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 16,912 곳이 지정되어 있고 달서구는 159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2009년에는 지정대상의 64.4%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2019년에는 지정대상의 81.8%가 지정되어 매년 지정율은 소폭 증가되었고,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수의 증가에 따른 어린이교통사고는 감소한다는 서울시 통계가 있음.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p data-bbox="861 1858 1508 1935">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이용시 아동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아동 안전공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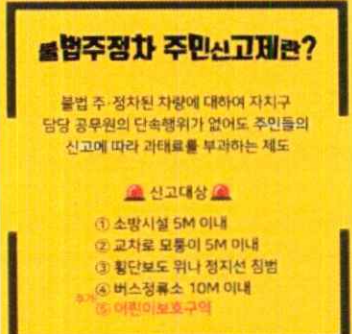

#### 4.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 시설

- 발 표 자: 박재형 의원
- 발표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운영 및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교통법규의 준수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고 있음.
- 최첨단 전자장치와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중이며, 바닥신호등, 노란발자국, 옐로카펫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음.
-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는 2022년 100%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통학로 확보사업과 불법주정차 단속 CCTV도 설치 중에 있음. 도로폭이나 공간부족으로 통학로 조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속도를 더욱 낮추고, 이외에도 과속 방지턱 같은 시설을 보완하고, 노란신호등 같은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는 등 정비중에 있음.
-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무한한 투자는 불가능 하므로 시설표준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와 설치, 설치된 시설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기존 교통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하는 활동이 보태져야 할 것임.



## 5. 교통안전의식 전환

- 발 표 자: 이영빈 의원
- 발표내용: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편리함에 대한 욕구가 커질수록 자동차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와 그에 대한 손실은 동반되는 현실임.
- 그러므로, 시설을 보강하고, 법과 규정을 강화하며, 마스크 등을 통한 홍보를 활발히 전개하여 안전의식전환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함.
- 전국적으로 승용차는 증가하고, 승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달서구는 승용차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달서구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작용과 최근 인구가 증가되는 재건축·신축 아파트 지역의 대중교통망 확충이 충분치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대구는 다른 대도시보다 어린이교통사고가 월등히 높은데, 다른 여건을 제외하고 보면, 운전자의 안전의식 대전환이 필요함.
- 어떠한 강력한 제재보다 효과적인 것이 안전의식의 전환으로, 지금은 제도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법규의 준수가 주민들의 일상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교통안전계도활동
 <p><b>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b></p> <p>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단속행위가 없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p> <p><b>신고대상</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방시설 5M 이내</li> <li>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li> <li>③ 횡단보도 워나 정자선 침범</li> <li>④ 버스정류소 10M 이내</li> <li>⑤ 어린이보호구역</li> </ol> <p>주요: 10,000원/회 과태료 부과</p>	 <p><b>교통안전계도활동</b></p>

## 6. 간담회 총괄

- 발 표 자: 이신자 의원
- 발표내용: 어떤 법도, 어떤 획기적인 교통안전 시설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법과 규정을 지키고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의식전환의 첫 번째 단계로, 지키지 않으면 그보다 더 과중한 제재가 따르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음.
- 불법노상주정차가 불가능하도록 도로와 보도를 정비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현재 일반도로의 2배, 2022년에는 3배로 강화하고, 소화전, 교차로, 정류장,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함. 8월부터 주민신고제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함.
-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교통안전계도활동을 전국초등학교로 확대·강화하고, 어린이관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을 6종시설에서 12종시설로 확대 운영하여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어린이는 약자이면서 동시에 전국민과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최대 가치임. 키가 작고 시야가 좁은 어린이의 특성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자신의 관심사만 집중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교통사고에 더더욱 노출되기 쉬움.
- 이러한 이유로 특별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우리 단체와 같이 끊임없는 연구활동이 필요하다 생각함.
- 어린이교통사고는 위 자료와 같이 보행 중 발생이 대다수이므로 절대 차도에서 보행하지 않고, 녹색불에도 좌우 확인 후 횡단보도 횡단, 손을 들고 길 건너기, 밝은 색상 옷 착용, 우산 바르게 쓰기 등 가장 기초적인 어린이 교육을 체계적, 의무적으로 강화하여야 함.

- 변화된 법과 규범을 홍보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교통시설을 정비하는 등 많은 활동들이 민식이법 시행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 어린이에게 교육이 필요하듯 운전자에게도 꼭 교육이 필요함. 전국민이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광고문구처럼 전국민이 무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간담회 진행



이신자 의원

김귀화 의원



박재형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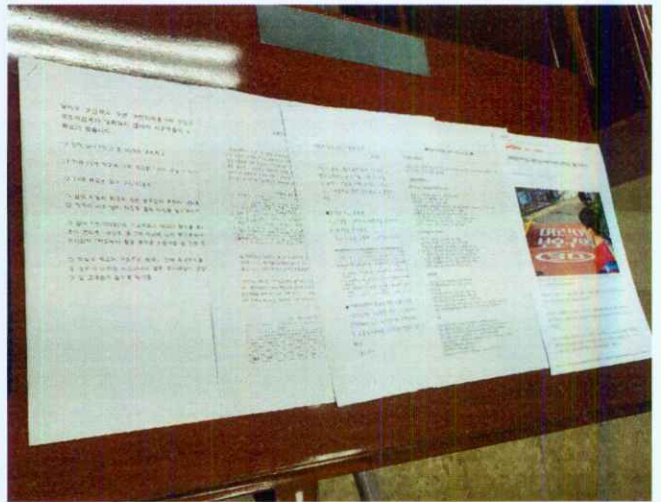
박종길 의원



서민우 의원



개인별 제출자료 모음



### Ⅲ

## 향후 간담회 계획

- ☐ 연구용역기관 중간보고회 개최(9월 23일)
- ☐ 달서구 교통관련 조례 연구·분석 간담회 개최(10월 초)
- ☐ 조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집행부 의견 청취(10월 중)
- ☐ 조례 제개정 추진(제274회 임시회)

## IV

## 개인 보고서

## □ 교통안전의식의 전환(이영빈)

현대사회가 지속될수록 시민들의 교통불만 욕구해소의 대안으로 자동차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위 차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있다. 해마다 지자체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보강 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주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구지역 차량증가 현황과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을 토대로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전환에 대한 미시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

## - 자동차 등록대수 (2017~2019년) -

	2017			2018			2019		
	승용	승합	화물	승용	승합	화물	승용	승합	화물
전국	18,034,540	867,522	3,540,323	18,676,924 (↑3.5%)	843,794 (↓2.8%)	3,590,939 (↑1.4%)	19,177,517 (↑2.6%)	811,799 (↓3.9%)	3,592,586 (-)
부산	1,085,121	47,037	190,987	1,125,462	45,441	190,070	1,152,712	43,687	188,272
대구	956,778	34,329	163,254	979,600 (↑2.3%)	33,206 (↓3.3%)	162,693 (↓0.3%)	995,003 (↑1.5%)	31,688 (↓4.7%)	160,458 (↓1.3%)
달서구	222,687	7,335	38,117	228,921 (↑2.7%)	7,142 (↓2.7%)	37,945 (↓0.4%)	236,350 (↑3.2%)	6,898 (↓3.5%)	36,944 (↓2.7%)

출처 : 도로교통공단

□ 전국적으로 승용차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반면에 승합차는 지속 감소중에 있음.

□ 대구는 전국에 비해 증가폭이 낮지만 2019년 달서구의 승용차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달서구의 산업구조 등의 변화로 화물차량의 등록은 감소하고 있음.

달서구의 계속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량의 등록이 늘어나는 것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작용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대구지역 증가세를 2배 웃도는 것은 문화적작용 외적 요인으로 인한 원인일 수 있음.

▶ 달서구는 최근 재건축으로 들어선 신축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간의 노선, 배차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 현황(2017~2019년) -

	2017			2018			2019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전국	10,960	54	13,433	10,009	34	12,543	11,054	28	14,115
부산	481	3	572	411	1	477	471	1	561
대구	630	2	733	568	0	679	775	0	964

출처 : 도로교통공단

- 대구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2018년 소폭 감소하다 2019년 대폭 증가 함.
- 인구 100만이 더 많은 부산지역에 비해 어린이교통 사고건수가 64% 높음.
- 대구보다 복잡한 도로여건을 가진 부산을 크게 상회하는 까닭으로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미흡을 유추 할 수 있음.

위 기초자료를 통해 '부산에서 운전 잘하면 어딜 가도 잘한다.'는 우스갯소리의 현실을 보는가 하다가도 타 광역시 사례를 통해 대구지역의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월등히 높다는걸 알게 됨. 인천(439건), 광주(442건), 대전(407건), 울산(218건)으로 대구(775건)은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높은 수치 임. 기본적인 교통여건의 열악함을 제외 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할것으로 생각 됨.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통안전 캠페인의 확대 ▶교통안전의식(캠페인or강의) 참여자 자동차세(지방세) 일부 감면 등이 있음.

**시간대별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 (2019년, 전국)**

	합계	2019											
		0시~2시	2시~4시	4시~6시	6시~8시	8시~10시	10시~12시	12시~14시	14시~16시	16시~18시	18시~20시	20시~22시	22시~24시
사고건수	567	1	2	2	5	62	21	56	157	147	93	18	3
사망자수	6	0	0	0	0	1	1	1	0	2	1	0	0
부상자수	589	1	2	3	5	65	24	55	162	154	97	18	3

출처 : 도로교통공단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은 14시~18시에 가장 많이 일어 남.
- 등교시부터 방과후활동 시간내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2019년부터 스쿨존 교통지도 노인일자리를 통해 스쿨존내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자료에는 없지만 2017년 사고건수(479건)와 2018년 사고건수(435건)로 전년대비 2019년 사고건수(567건)는 30% 증가하였음. 이는 교통지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현장지도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별개로 2020년부터 적용되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내 시속30km 주행 의무화 및 교통시설물 추가 설치 예산확대로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됨. 이에 따라 달서구는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다량발생 시간대 주정차 단속 강화 ▶방과후 시간대 교통안전 캠페인 확대등에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임.

## 7. 7차 모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 □ 달서구교통연구회 용역업체 중간보고회

- 일 시: 2020. 9. 23.(수) 10:00
- 장 소: 구의회 대회의실
- 참석자: 이신자, 김귀화, 박왕규, 박종길, 이영빈  
불참의원: 박재형, 서민우
- 내 용
  - 용역업체 용역활동 중간보고회
  - 달서구 관할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상황
  - 달서구 관할 교통안전 법규와 정책
  - 중간보고회 내용에 대한 의견

##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중간보고회

민식이법과 관련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의 교통현황 및 도로상황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활동 중인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의 중간보고회 결과를 보고함.

### I 보고서 개요

- ☐ 일 시: 2020. 9. 23.(수) 10:00 ~ 12:00
- ☐ 장 소: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
- ☐ 주 제: 민식이법 관련 달서구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 ☐ 인 원: 8명
  - 달서구 교통연구회 위원(5명)
    - 이신자, 김귀화, 박종길, 박왕규, 이영빈 의원
  - (사)한국창의정책학회 연구원(3명)
    - 김종세 책임연구원, 기화서, 조영승 연구원.

### II 세부추진내역

- ☐ 달서구 관할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상황
  - ▶보고자: 기화서 연구원
    - 달서구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현황
    - 달서구 관할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예정현황

-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현황
- 관내 현장 분석: 민식이법의 주요 대상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0곳을 선정·방문하여 현장분석 및 문제점 파악

No	구분	방문현장	현장분석 및 문제점
1	특수학교	세명학교	표시 노후, 변색, 경사진 구역 원거리에서 표시, 신호등 색상처리 등 시설보완
2	어린이집	미리내	최근 도색작업 완료,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다수 시설 부족
3		신당*한빛 (같은 아파트단지내)	아파트 단지내 위치한 관계로 어린이보호시설 전무함
4	유치원	한샘	“
5		아림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시설설치에 어려움이 많으나 기본적인 보완이 필요
6	초등학교	성지초	경사진곳에 위치한 학교이므로 원거리지점부터 보호구역 노출필요
7		성곡초	통학로 전체 방호 울타리 필요, 도색 선명도 보완, 무단횡단 방지펜스 필요
8		송현초	통학로 방호울타리 필요, 전체적으로 양호
9		한샘초	학교주변 사거리 방호울타리 설치, 단속카메라 설치
10		유천초	단속카메라 설치, 신호등 교체 필요, 불법주정차 단속

- 학부모 제언의견: 스쿨존 드라이브스루 승하차시스템 시범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학교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건의가 있었으며, 주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요청이 대다수임.
- 현장 방문 결과 몇가지 위험 요소가 관찰되었으며, 어린이보호 관련 설치가 미흡한 곳은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실제로 도로 위 교통사고보다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함

## □ 달서구 관할 교통안전 법규와 정책

### ▶보고자: 조영승 연구원

- 달서구 조례의 문언 검토를 기초로 한 개선안: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기초로 한 개선안: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규정할 조례 보완 필요
- 초등학교 학부모 건의를 기초로 한 개선안: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요청이 다수이므로 단계별로 규정하여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 수립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보완하고, 교통계획을 보고, 공개하는 규정 마련, 민식이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성과분석까지 담당하게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보고 또는 공개하여 교통안전정책의 활성화 도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범학교의 지정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 학교에 한해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조례: 조례상의 “안전시설”의 개념과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안전시설”의 의미가 달라 상위법령과 충돌의 여지가 있음. 관련 개념 재정립 필요

## □ 중간보고회를 듣고

- 민식이법은 양면을 가짐. 민식이법으로 인해 상권에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 이동속도 때문에 업무에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등 한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의 그늘로 힘들어 하는 다른 한쪽을 배려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함
-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율이 높다는데 놀랐으며, 이를 위한 대책을 다같이 마련해야 하는데도 동의함. 단, 사유지내라는 단서가 붙기에 법과 규정과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엮어나갈지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함.
- 송현초등학교의 보행로 확보를 보면서 다같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음. 남부초등학교의 통학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음.
- 아이들의 통학을 돕는 부모들의 차량이 등하교 시간마다 학교앞에서 주차장을 이루는 현 시점에서 통학드라이브스루 승하차시스템 도입은 꼭 필요한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생각되나, 장소 확보와 교통흐름 고려, 다른 보행 학생들과의 안전문제 등 현실적인 구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스템임.

중간보고회 진행



이신자 의원



김귀화 의원



박왕규 의원



박종길 의원



이영빈 의원



제안 보고



### Ⅲ

### 향후 계획

- ☐ 달서구 교통관련 조례 연구·분석 간담회 개최(10월 초)
- ☐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 자원봉사 실시(10월 초)
- ☐ 타시도 교통정책 현장견학 실시(10월 초)
- ☐ 조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집행부 의견 청취(10월 중)
- ☐ 조례 제개정 추진(제274회 임시회)

## 8. 8차 모임: 조례 제개정 간담회 및 발의

---

### □ 달서구교통연구회 조례 제개정

- 일 정: 2020. 10. 13.(금) 입법예고
- 발의의원: 박재형 의원
- 발의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내 용
  - 달서구 교통관련 조례 분석
    - 교통행정과: 7건
    - 주차관리과: 3건
  - 타지자체 교통관련 우수 조례 분석
  - 제개정 조례 논의
  - 제274회 임시회 반영 및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논의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3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 시범학교와 시범학교가 아닌 곳의 차별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 자전거안전모 착용을 책무화 하여 교통안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로 신설  
(안 제3조부터 제4조)
- 나.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된 학교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학교로 지정으로 개정(안 제1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전거안전모 착용 유도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전거안전모를 착용할 책무

제14조제3항 중 “구청장은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를 “구청장은”으로,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으로 한다.

## 9. 9차 모임: 현장 확인을 위한 학교 앞 자원봉사

---

### □ 달서구교통연구회 자원봉사

- 일 시: 2020. 10. 22.(목) 07:50
- 장 소: 대구송현초등학교 앞
- 참석의원: 이신자, 김귀화, 박왕규, 박종길, 서민우, 이영빈  
불참의원: 박재형
- 내 용
  -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 효과 현장 확인
  - 구체적인 현장 상황 체험
  - 어린이들과 운전자의 상황별 행동 패턴 파악
  - 현장 주민의견 청취
  - 교통안내 자원봉사

# 연구단체 자원봉사 추진계획

달서구교통연구회의 효과적인 연구용역 진행의 과정으로 학교 앞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통한 현장 어린이보호 교통시설 및 어린이 체험 현황을 현장파악 하여 달서구 교통정책 및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

## I 자원봉사 개요

- ☐ 일 시: 2020. 10. 22.(목) 07:40 ~ 10:30
- ☐ 자원봉사장소
  - 대구송현초등학교 주변
- ☐ 인 원: 7명
  - 달서구교통연구회 의원(7명)
    - 이신자, 김귀화, 박재형, 서민우, 박왕규, 박종길, 이영빈 의원

## II 세부추진내역

- ☐ 자원봉사 내용
  - 위치: 대구 달서구 송현로 128
  - 민식이법 관련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달서구교통정책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달서구 교통시설의 다양한 현장 확인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 어린이들이 느끼는 교통안전과 관련시설물의 현황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곳길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 특히,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완공된 송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등
- 단순한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설치된 교통시설과 제도의 효용성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함.

자원봉사 활동 참고사진	완공된 송현초등학교 통학로
	

☐ 일정표

일 자	시 간	일 정 내 용	비 고
10.22.(목)	07:40 ~ 08:00 (20분)	집합 및 봉사 교육	
	08:00 ~ 10:00 (2시간)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자원봉사 및 현장 어린이 교통시설 파악	학교장과의 간담회
	10:00 ~ 10:30 (30분)	구청복귀	이동

※ 당일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해당없음

### III 행정사항

- ☐ 현장 관계학교 사전 협조 요청
- ☐ 준비물: 의회홍보물 및 방문기념품 준비, 직원사진촬영 지원
- ☐ 참여자 자원봉사 실적 신청

## 연구단체 자원봉사 결과보고

달서구교통연구회의 효과적인 연구용역 진행의 과정으로 학교 앞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통한 현장 어린이보호 교통시설 점검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황파악으로 달서구 교통정책 및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

### I 자원봉사 개요

☐ 일 시: 2020. 10. 22.(목) 07:50 ~ 09:50

☐ 자원봉사 장소

○ 대구송현초등학교 주변

☐ 인 원: 6명

○ 달서구교통연구회 의원

- 이신자, 김귀화, 박왕규, 박종길, 서민우, 이영빈 의원

### II 세부추진내역

☐ 일정표

일 자	시 간	일 정 내 용	비 고
10.22.(목)	07:50 ~ 08:00 (10분)	집합 및 봉사 교육	
	08:00 ~ 09:40 (1시간 40분)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자원봉사 및 현장 어린이 교통시설 파악, 학교장과의 간담회	
	09:40 ~ 09:50 (10분)	구청복귀	이동

## □ 자원봉사 내용

- 위치: 대구 달서구 송현로 128
- 민식이법 관련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달서구교통정책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달서구 교통시설의 다양한 현장 확인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 어린이들이 느끼는 교통안전과 관련시설물의 현황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굣길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 특히,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통학로가 완공된 송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등
- 단순한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설치된 교통시설과 제도의 효용성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였음.

자원봉사 활동 사진



## □ 자원봉사를 마치고

이신자 의원



- 송현초등학교는 주택지역과 아파트 지역이 혼재한 곳에 위치함. 특히 학교가 주택지역 쪽에 위치하여 주택가 골목골목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작은 길들은 많고, 불법주차와 쓰레기로 인해 주변 환경이 어수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 몇 년 동안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고심하고 토론하고 노력한 결과가 학교부지를 활용한 안전통학로로 탄생하여 감회가 새롭고,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람.

- 코로나의 상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기대로 등곳길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밝은 아이들의 모습 또한 감사함. 우리 의원들의 자원봉사에 동참해 주신 학교관계자분들과 학부모님께도 감사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김귀화 의원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박왕규 의원



- 어른 6명이 일렬로 서도 넉넉할 만큼 넓고 안전한 통학로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 졌고, 그 반면에 곳곳에 주차된 자동차와 그 사이로 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여 안타까웠음.
- 통학로는 깔끔하고 안전해 보였지만, 그 외에 주택가와 학교가 연결된 골목길에 안전시설이 보충될 필요가 있음.

박종길 의원



- 실제 구현된 안전한 학교통학로는 한 사람의 노력이나, 한 기관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 몇 년의 노력과 여러 기관의 협조가 만들어낸 결과임. 교육청, 경찰청, 학교,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학부모, 학생 등 민·관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 낸 더 큰 목표와 결실을 보며 또 한번 협조와 토론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음.

아이들의 추억과 사랑을 먹고 자란 송현초등학교 왕버들 나무입니다. 아이들의 운동장 동무가 되어 주고, 가방을 지켜주며 졸업생 기억속에서 하늘 높이 자란 나무는 이제 학교 밖에서 안전통학로의 기둥이 되어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킵니다. 그 뿌리는 그대로이나 송현초 졸업생들의 마음에 남은 왕버들나무의 추억은 안전이라는 다른 색깔이 되어 남겠지요...



서민우 의원



- 몇 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안전한 통학로의 실제 효과가 궁금했는데, 안전해 보이는 통학환경과 학부모의 반응이 그 효과를 바로 보여줌. 통학로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주는 안정감의 효과도 큰 것 같음. 단, 통학로를 이용하면 얼마나 안전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잘 습관화 시켜 수년간 무의식중에 이용하던 등하길을 안전통학로로 바꾸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음. 또한 아직 지저분한 구역이 일부

있는데,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깨끗하고 환하게 조성 되도록 학교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음.

- 우선, 코로나의 여파로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 시간과 환경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안타까웠음. 안전하고 환하게 조성된 통학로가 반가웠지만, 아이들의 통학로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기엔 미흡한 요소가 있음. 누구라도 아이들의 통학로임을 알 수 있도록 통학로 바닥을 조성해서 아이들의 안전구역임을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오토바이나 수레 같은 위험요소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음. 또

이영빈 의원



한, 모든 제도와 환경의 우위에 서 있는 건 사람들의 의식 개선임을 알고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협조하고, 곧 설치될 바닥 신호등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확실한 안전지대가 되어 여러 학교의 모범 사례가 되길 희망합니다.

## 10. 10차 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 □ 달서구교통연구회 용역업체 최종보고회

- 일 시: 2020. 11. 16.(월) 10:00
- 장 소: 구의회 대회의실
- 참석자: 이신자, 김귀화, 박종길, 서민우, 이영빈  
불참의원: 박왕규, 박재형
- 내 용
  - 용역업체 용역활동 최종결과보고회
  - 달서구 관할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중심 교통안전 상황
  - 달서구 관할 교통안전 법규와 정책
  - 최종결과보고회 내용에 대한 의견

민식이법 관련 달서구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최종보고회

민식이법과 관련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의 교통현황 및 도로상황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활동 중인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의 최종보고회 결과를 보고함.

### I 보고서 개요

- ☐ 일 시: 2020. 11. 16.(월) 10:00 ~ 11:10
- ☐ 장 소: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
- ☐ 주 제: 민식이법 관련 달서구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 ☐ 인 원: 8명
  - 달서구 교통연구회 위원(5명)
    - 이신자, 김귀화, 박종길, 서민우, 이영빈 의원
  - (사)한국창의정책학회 연구원(2명)
    - 김종세 책임연구원, 조영승 연구원.
  - 달서구청(1명)
    - 교통행정과 최상우 과장

### □ 달서구 관할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중심 교통안전 상황

#### ▶보고자: 김종세 연구원

- 이번 연구는 민식이법을 계기로 달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현황, 나아가 우리구 전체의 교통안전현황을 연구, 분석하고,
- 교통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음.
- 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장환경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 관내 민식이법의 주요 대상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수를 선정·방문하여 현장분석 및 문제점 파악 하였음.
- 실제로 유치원 시설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시설은 아주 미흡하였으나, 유치원 아이들은 부모의 동행과 등하원 차량의 운행으로 시설확충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었음.
- 지자체에서는 아직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실정임.
- 현 상황대로 진행하고, 민식이법의 보완이 계속 이루어 진다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시설은 곧 확충되겠지만,
- 그 외의 유치원이나 주택가 이면구역 등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한거리의 문제와 아파트단지내 교통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남음.
- 또한,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한 상가구역 주차단속 및 속도 단속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역상인들이 많아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법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함.
- 2016년 실시한 '제3차 달서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와, 2019년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광역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개선대책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용역결과물에 따라 연결된 정책이 세워지고 실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구현이 미흡한 점이 있음.

## ☐ 달서구 관할 교통안전 법규와 정책

### ▶보고자: 조영승 연구원

-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주변의 안전시설 및 안전인식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아파트 단지내 구역은 사유지로 간주되어 관의 안전시설 추진이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 실제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는 구역이 많음.
-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내부 까지 지자체의 여력이 미치기가 쉽지 않음
-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규정이 다수 있으나, 임의규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 몇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등으로 변경하여 강행규정의 형식을 취할 것을 추천함.

## ☐ 최종보고회를 듣고

- 실제 달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고, 단속건수도 늘어나는등 많은 고질 불법 주정차구역들이 정비되고 있음.

- 달서구의 자체 계획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통계획은 큰 기준과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므로, 대구광역시의 기본 계획에 따라 8개구군이 동일하게 집행되었으면 함.
- 민식이법은 올해초 시행이 시작되었고, 아직 민식이법 준수와 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임, 이를 위한 예산이 세워지고, 용역이 완성되는 내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안전시설설치 결과와 내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용역사업중 학부모의 제안이 있는 등하교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에 대하여, 교통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요청이 있는 학교가 있을 경우,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테스트 해 볼 계획임.
-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규 건설 아파트에 대하여서는 건설과정에 안전시설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생을 상대로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안전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의 폭과 방식 등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지난 6개월간 연구회 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연구위원분들과 용역업체에 감사를 표하고, 이 연구단체 활동을 계기로 교통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의정활동을 부탁함.

#### 최종보고회 진행



이신자 의원



김귀화 의원



박종길 의원



서민우 의원



이영빈 의원



결과 보고



### Ⅲ

### 향후 계획

- ☐ 최종보고회 자료 분석 간담회 개최(11월 말)
- ☐ 최종보고회 자료 보완 및 활동보고서 작성(~12월 중)
- ☐ 운영위원회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12월 중)
- ☐ 본회의 연구단체 활동 결과 발표(12월 말)

## 11. 11차 모임: 본회의 연구용역 결과발표[예정]

---

### □ 달서구교통연구회 결과발표

- 일 시: 2020. 12. 21.(월) 10:00
- 장 소: 구의회 본회의장
- 참석자: 소속 연구의원, 담당직원
- 내 용
  - 달서구교통연구회 연구결과 본회의장 발표
  - 홈페이지 게시
  - 의원연구사례집 발간

---

## **IV . 활동관련자료**

---

## 부록1

## 달서구교통연구회 언론보도 자료

### □ 의회보

의회보 79호



### 어린이교통안전정책토론

달서구의회는 8월 19일 대회의실에서 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린이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착의 기회를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



### 2020년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중간보고회

달서구의회는 9월 23일 민식이 법 관련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현황 및 도로상황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교통연구회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 □ 희망달서

### 희망달서 10월호

#### □ 달서구의회 어린이교통안전정책토론회 □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좌장: 이신자 의원, 사회: 김귀화 의원)를 8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희망달서 11월호

#### □ 2020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중간보고회 □



‘2020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중간보고회’(좌장:이신자 의원, 사회:김귀화 의원)를 9월 23일 개최했다.

## □ 언론매체

### 경상매일신문

#### 달서구의의회,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영식 기자 / yskim684@hanmail.net    날짜 : 2020년 10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경상매일신문은 달서구의의회가 지난 13일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 달서구의회 제공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달서구의의회는 지난 13일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종길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로부터 도시생태속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현 시점에서, 생태복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각 분야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회를 통해 길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도시생태속 복원사업의 추진방향 ▶월곡지-도원지-진현천-달성습지를 연결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한 최적의 도시 자연환경 조성 방향 모색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이다.

첫 번째 이야기로 '건강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에 대해 토론회 했으며, 토론회로는 환경분야 관심 주민 11명, 연예아피 김중현 대표, 영남고교 조만호 교사, 달서구청 김재한 환경보호과장, 달서구의의회 윤경근 의장,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김인호 박창규 벼농식 안영환 조복희 의원이 참석했다.

김영식 기자 / yskim684@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4일 [출처:경상매일신문]

## 대구 달서구의회 연구단체 교통연구회 "발로 뛰고 연구하고 본격 활동"

▶ 교통연구회 단체 구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조례 제 제정을 위한 활동

도인호 기자 [doindah@naver.com](mailto:doindah@naver.com) | 경북 대구 달서구 | 2020년 8월 14일

내외통신



▲ 대구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위원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마련을 위한 제언과 조례 제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우, 이만희, 박영선, 김규 (대구=미래일보) 도인호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통연구회, 박재철, 박종길, 서민우, 이영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연구회는 달서구의 다양한 교통정책들을 점검하고, 지역의 교통을 위하여 제시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마련을 구에 맞는 정책 제언과 조례 제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대구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위원들은 대구시 교통정보센터를 확인차 현장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우, 박재철, 김규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전문가의 연구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8월 18일에는 성지초등학교에서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교통지도 자원봉사자를 실시하였고, 19 일에는 각 학교 학부모의 의견정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4일에는 대구어린이교통랜드, 대구시교통정보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교육과 정책을 전달하는 환경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회 참석 의원들은 "의견들이 매우고 풍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연구단체 기본이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내실있는 활동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도와 환경을 분석하여 달서구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교통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민식이법 뿐일까요?」

이승걸 기자 [gsang2016@naver.com](mailto:gsang2016@naver.com) | 등록 2020.11.16 22:29:40

미래일보



▲ 16일 오전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민식이법 관련 교통안전 정책연구, 2020년 대구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결과 보고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달서구의회 사무국 제공

(대구=미래일보) 이승걸 기자=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민식이법' 뿐일까요?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교통연구회'는 16일 오전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식이법'과 관련 달서구 교통안전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교통연구회 이신자 김규화 박종갑 서만우 이영빈 의원과 관련 부서인 교통정책과 관계자, 용역수행업체가 참석하여 지난 3개월간 수행해 온 달서구교통안전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토론, 의견제시, 앞으로의 집행부와 의원의 역할 등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어린이교통사고율은 10만 명당 87명으로 OECD회원국가를 세 번째로 높다.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교통연구회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시행과 더불어 달서구에서 민식이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교통현황 및 도로상황 점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발의 제시 등을 목표로 지난 6개월간 활발한 연구단체 활동을 펼쳤다.

연구용역의 수행과 더불어 교통관련 조례개정, 2회에 걸친 어린이교통안전 자원봉사 등을 통한 한걸음 farther, 교통안전관련기관 현장견학, 어린이교통안전 주민포럼회 개최, 의원간담회, 용역업체와의 간담회 및 보고회 등을 개최하며 활발한 연구회 활동을 이어왔다.

□ 발간 및 배포 완료

보고서 표지

민식이법 관련 달서구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



# 민식이법 관련 달서구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심으로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이신자 김귀화 박왕규 박종길 박재형 서민우 이영빈

2020. 11. 16.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

### 부록3

## 관내 어린이교통안전 시설 및 미비점

LED 바닥신호등-성지초



학교부지를 활용한 안전통학로-송현초



경사진 지형을 고려한 속도제한 표시와 과속방지턱 필요-미리내어린이집



경사진 지형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길게 설정하고 과속방지턱 필요-성지초



초등학교 정문 사거리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은 있으나, 불법주정차, 과속단속 카메라 필요-한샘초



## 부록4

## 간담회를 통한 교통관련 정책 서면질의 및 답변

### □ 서면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교통안전계도활동 관련

어린이는 약자이면서 동시에 전국민과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최대 가치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2020년 3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여러 사업중에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교통안전계도활동이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강화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접촉이 잦은 저희 의원들은 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교통안전계도활동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교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생각하여 배치된 어르신들이 낮시간 덥다는 이유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모자와 조끼 등 해당 복장을 갖추지 않거나, 시간을 어기는 등 여러 유형의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민원이 비단 우리 의원들에게만 들리는 건 아닐 것 입니다. 분명히 좋은 제도이지만 체계화된 규칙과 충분한 교육,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제도를 시행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계도활동이 어린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 방안이 궁금합니다.

□ **서면답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교통안전계도활동 관련**

○ 우리 구에는 현재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7개의 수행기관 4,00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어르신의 기본소득 보장 등의 사유로 정책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인일자리 인원: 2018년 3,096명 → 2020년 4,003명

※ 일자리 수행기관: 달서구청, 달서시니어클럽,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상록수노인종합복지센터, 성서재가노인돌봄센터, 월배노인복지센터

○ 어르신 일자리사업 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지원 및 안전지킴이사업은 달서구시니어클럽 외 3개의 기관(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상록수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킴이 사업 인원: 2018년 305명 → 2020년 583명

○ 정책적으로 늘어나는 어르신일자리 인원과 관심에 비해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관리 인력과 여건은 크게 변화가 없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진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임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은 매년 12시간 이상 활동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교통지도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관별로 교통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에 제한과 어려움이 많았으나 하반기에 남은 교육을 관련 전문가를 초빙·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교통지도 및 안전한 노인일자리활동을 위해 학교와도 협의하여 수시 지도점검 및 수행기관의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노인일자리 활동 참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복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서면질의: 교통시설물의 표준화 및 한글화 관련

2020년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노란발자국, 바닥신호등, 옐로우카펫 등 많은 어린이보호시설이 급격히 설치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흔히 스쿨존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카펫으로 불리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신호등 전체를 노랗게 페인트 칠한 노란 신호등, 노란발자국, LED바닥신호등, 태양광LED 표지병 등 생소하고 특이한 교통시설들이 급격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마다 표지판 등 시설물이 들쭉날쭉한 것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예산투입과 시설설치에 앞서 먼저 어린이보호구역내 표지판 등 시설물을 표준화해서 설치하고 관리해 줄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너무나 생소하고 어색한 교통시설물들의 이름이 정형화되고 편안하게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옐로우카펫'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인데다가 듣고도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 없는 용어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용어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용모를 하거나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이 궁금합니다.

□ **서면답변: 교통시설물의 표준화 및 한글화 관련**

- 먼저, 이신자 의원님께서 교통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행정안전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 관련 시설물의 설치위치와 방법은 행안부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을 통해 표준화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공통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2020년에는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의 전산 DB구축을 위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국·시비 예산 100백만원을 재배정 받아 관내 153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하반기 중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중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2021년 구정업무계획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 “엘로카펫”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일종으로 2018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그 명칭과 설치방법을 전국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구만 명칭을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신 자: 교통연구회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였던 시기가 있었다. 그 원인은 국가 정책의 목표를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에 맞추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것을 교통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인간 중심의 교통안전관리와 교통안전 책임의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개정하였고, 시행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최근에는 상황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이라는 도심부 속도 하향 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의 일반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 도입 후 전체 사고건 수 13.3% 사망자 수 63.6%가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고 제한속도 30km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 25일 민식이 법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었고, 과속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도 의무화됐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 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후 통과되었다.

민식이 법이 전면 시행 후 교통사고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확보가 당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달서구 지역에 민식이법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6월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우선, 지역 내 도로교통 시설 등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활동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난 8월 간담회를 기점으로 관내 각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들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등교길 안전 지킴이 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실시하여, 교통흐름을 살피고 학교관계자들과 주변 상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 지역의 교통 전문가를 모시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시설물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였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학교담장을 허물며 통학로를 선뜻 내어준 송현초등학교의 모범 사례를 보며,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여러 기관과 논의하여 협의점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배웠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의 부족, 속도제한 표지판 미설치 등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방안을 마련해야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설치와 통학로 안전을 구체화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과 보행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절감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는 끊임없이 배우고, 제안하고, 토론하며 진행 되어 왔고, 달서구 내 교통정책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노력 하였다.

교통수단은 현대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이동수단인 동시에, 도로를 달리는 강력한 흥기이기도 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가정의 평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차원에서 교통사고 개선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운전자의 교통 편리성도 간과할 수 없지만, 누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수 있고, 특히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판단이 부족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종식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감소와 지역민의 교통안전도 확대될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의무 설치 및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과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연구회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 김 귀 화: 연구회를 마감하며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이 발의되었고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2020년 3월 전면 시행 되었다. 이에 달서구의회에서도 민식이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교통현황 및 도로상황을 살펴 보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달서구의회 연구단체인 교통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많은 중소도시들이 차량이 현재처럼 아주 급격히 증가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골격을 형성하여 도시의 도로, 보행로, 구역 등 공간 배치에 대한 전면적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재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이 집중 시행된 지역은 조금 낮지만 옛 주택밀집지역 주변의 학교는 민식이법의 관점에서 보면 법의 원활한 시행이나 어린이 교통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차량의 증가와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 등하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해야 할 어린이의 등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연구회 위원들과 성지초등학교와 송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교통시설물의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등굣길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 및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시고 효과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의견청취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참석하신 운영위원장님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다.

또한, 대구어린이교통랜드, 대구시교통정보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교육과 정책을 진행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연구위원들이 모여 어린이교통사고 사례분석 간담회도 가지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고 의원 개인별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여 현시점의 교통정책 및 제도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찾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서면질의도 하였다

송현초등학교는 좁은 도로와 주택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어려워 학교관계자분들과 주민들을 만나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학교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학로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의 반대로 통학로 확보가 무산되고 말았다.



다행히, 2019년 행전안전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도로 폭 협소 등으로 공간이 부족한 경우 학교측에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부지 일부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담장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하였다.

올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예산 국시비 7억원이 투자되었고 그 결과, 송현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내당, 본리초등학교에도 통학로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남부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통학로 설치가 필요한 초등학교는 대부분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또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인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연구회 위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제도와 현장을 분석하여 달서구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는데 일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짧은 연구기간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과 함께 ‘교통연구회’는 지난 11월16일 ‘민식이법과 관련 달서구교통안전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교통연구회가 지난 수 개월간 수행 해 온 달서구교통안전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토론, 의견제시, 앞으로의 집행부와 의원의 역할 등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달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관리 미흡, 자녀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에 의한 학교 앞 교통체증 문제, 민식이법이 미치지 못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등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 강구를 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 졌고, 집행부에 검토를 요구하였다.

얼마 전 토론회를 계기로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의 연락을 받고 교통 담당팀장님과 함께 초등학교 현장에 나갔다.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경찰서의 협조요청 할 부분을 구분하여 동행한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시설개선, 운전자의 안전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어떠한 강력한 제제보다 효과적인 것이 안전의식의 전환으로 지금은 제도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법규의 준수가 주민들의 일상이 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해야 한다. 민식이법이 이루지 못했던 꿈과 지금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꿈꾸며 살 세상에 그 꿈이 상상이 아닌 일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박 왕 규: 교통연구회 활동을 통해 본 우리아이들의 안전 현주소

본 의원은 수년 동안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교통지도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여는 의정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교통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수치적으로, 규정을 확인하며 확인한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은 아직은 걱정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생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이미 총인구수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지금의 출생율이 이어진다면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율은 OECD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며, 더구나 대구시의 어린이 교통사망율은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한명 한명의 어린이가 소중한 교통사고율은 줄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생각해 왔고,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4년부터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를 소망하며 10개 초등학교에서 꾸준히 교통지도를 해 왔고, 교통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더욱더 구체화된 접근을 할 수 있었다.

### 전국 연령대별 교통사고(2016~2019년)

연령대	발생건수	대형사고	중대사고		사망자수	치사율(%)
			여객(건)	화물(건)		
20대 미만	17,882	6	10	5	289	1.62
20대	108,032	20	16	354	1,703	1.58
30대	140,878	23	9	1,179	2,176	1.54
40대	177,205	51	39	2,334	2,839	1.60
50대	225,731	60	67	3,152	4,020	1.78
60대 이상	202,114	64	36	2,121	4,569	2.26
알수없음	12,158	0	0	5	11	0.09
합계	884,000	224	177	9,150	15,607	

### 대구 연령대별 교통사고(2016~2019년)

연령대	발생건수	대형사고	중대사고		사망자수	치사율(%)
			여객(건)	화물(건)		
20대 미만	1,331	2	1	0	26	1.95
20대	7,011	1	2	14	71	1.01
30대	8,102	2	0	45	82	1.01
40대	10,698	0	0	91	116	1.08
50대	13,423	0	1	141	112	0.83
60대 이상	12,279	0	0	103	137	1.12
알수없음	959	0	0	0	0	0.00
	53,803	5	4	394	544	

자료출처: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지도를 하다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한 두번이 아니다. 특히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어린아이들이 건너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차를 몰아 위험천만한 경우가 허다하다. 민식이법의 시행과 이에 따른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보면서, 이러한 외관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운전자와 어른들의 의식전환이 아닐까 생각한다.

길을 건너는 어린이들의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교통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거리의 주인은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라는 생각과, 운전자들이 차량 운전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을 가보면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들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감동할 정도였고, 당연하다는 듯한 그들의 문화가 놀라웠다. 우리나라도 보행자 중심의, 어린이 중심의 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 되기를 바라며, 의원들의 이러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의정활동, 집행부의 법의 적용과 시행 노력, 학교에서의交通安全교육, 학부모와 학원을 운영하는 여러 보호자들의 배려 등 어느 한 기관, 한 단체가 아니라 전국민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 정착을 소망하며, 구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속적인 관심으로交通安全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0년 12월 달서구의원 박 왕 규

## 박 종 길: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이후 발의된 법안인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지도 일년이 되어가고 있다. 민식이 법의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법이 시행된 지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 광주에서 일어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세 남매 가족이 화물차에 치인 사고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7살 초등학생이 SUV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올해만 해도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한 장소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두 번째 사고가 난 뒤에야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설, 신호기 설치,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과속 방지턱 추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시설물을 왜 사고 이전에 설치하여 미연에 방지 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교훈삼아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떠한 법이나 제도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게 시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관리되지 않으면 목적인 바를 이룰 수가 없고 의도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30.3% 증가했다고 한다. 그동안 스쿨존과 관련하여 투자한 각종 어린이보호 시설물과 기울인 노력에 비하면 그 결과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스쿨존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운전자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속카메라의 설치이다. 현재 달서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56개소, 유치원 79개소, 어린이집 26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162개소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단속 카메라 설치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인력 단속보다는 효과가 훨씬 높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다른 곳보다 스쿨존에 우선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과태료 부과와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계도가 첫 번째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설치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스쿨존 내에서의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스쿨존 주변의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지속적인 불법 현수막 제거 및 홍보 등 정비활동이 필요하다.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속도, 신호주기 등 교통시설과 체제를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모든 시스템과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는 데 기인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전동킥보드 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11월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교통사고는 447건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경찰은 올해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면서 운전면허가 필요없고 만 13세 이상인 중·고학생도 운행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로 스쿨존 내에서 주행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스쿨존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박 재 형: 어린이 교통안전은 모두가 함께....

어린이는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약자이자 우리의 미래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집중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관련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주 행동반경이 학교주변이나 학원 등의 통학로라는 사실에 집중하면 교통안전사고 관련 법과 제도, 시설을 통학로를 중심으로 집중점검 하고 투자하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학로 주변의 안전이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과거 보다 더욱 강력한 수준의 정책과 규제 등의 법률 제도가 마련되었고, 실시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드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의 부족한 인지능력 및 사고대응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어린이 관련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연구와 해결점 도출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민식이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들은 지나치게 과도한 법 잣대를 적용하여 규제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선진국인 미국의 예로 보면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을 구분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수준의 규율을 자랑하고 있고, 지역별 수준과 상황에 따른 규율의 다각화 역시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적이고 형식적인 규율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어린이 통학 선진국인 미국의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조례 등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한 규율을 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단체를 통해 현장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부의 전문가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점에 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원봉사와 토론회, 현장견학, 다양한 간담회 등 다방면으로의 연구활동을 추진하였고, 개선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보편적인 어린이의 행동특

성과 양식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행정적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통학로 등을 실제 현장에서 점검하고 주변의 교통상황과 안전시설 등을 파악했을 때 확실히 과거보다 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여론 수렴, 학교와 파출소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자료 등을 활용한 조금 더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와 함께 추가적인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요구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나 인식개선 교육 등 특단의 방안과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 되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대안이 한순간의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안전에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과 역할의 바람직한 행사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 인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근본적인 고민과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투자와 관심은 결국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짧은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통하여 많이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연구단체 활동은 끝을 맺었지만 교통안전과 어린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다짐합니다.

2020년 12월 달서구의회 박 재 형

## 서 민 우: 교통연구회를 통한 연구단체 활동에 대하여

정책개발비라는 생소한 항목의 예산이 생기면서 우리 지방의원에게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구단체 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고 연구할지 고민하고 논의 하는 과정에 몇 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드디어 6월.. 봄부터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우리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식이법과 관련 달서구교통안전 정책 연구용역’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여러 교통정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을 교통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실제 정책을 되짚어 보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다니면서 체험하고 공부하는 기회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택하고 어떤 내용의 과업지시를 할지, 연구활동 과정을 어떻게 이어갈지.. 지나고 보면 처음 하는 연구단체 활동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뿌듯함과 후회가 함께 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입니다. 이 법의 필요성, 현장에서의 문제점, 실제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앞으로의 계획, 집행부의 추진현황 및 계획, 예산 상황, 주민의견, 조례 분석 등의 내용을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주민 토론회, 의견 발표를 위한 간담회, 용역업체의 자료에 대한 간담회 등 실제로 체험하고, 토론하고, 청취하면서 하나 하나 짚어나가는 것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연구단체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의 한계, 법의 테두리에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의 한계, 여러 관련 기관이 연관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막대한 예산 투입과 실제 눈으로 드러나는 효과에 대한 실망, 법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그 이면에 드러나는

문제점 등 이상과 현실에서의 차이에서 오는 실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안전은 바꿀 수 없다는 확신 등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과 자세를 되새겨 보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다가왔고, 연구단체 활동의 가장 큰 배움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된 송현초등학교 앞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던 사업을 몇 년간에 걸쳐 여러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와 사업을 추진하는 관점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좀 더 다양한 정책제안과 교통안전 방안 제시, 타시도 현장탐방 및 정책 분석 등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법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정책들에 대한 치열한 방안 마련 및 대안 제시 등이 부족하지 않았나 후회가 남습니다.

모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 역시 우리 의원과 주민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현실에 처한 여러 구민들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고 분석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은 단순히 어떤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어떻게 정책에 접근하고, 어떤 방향의 합의점을 찾고, 주민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의 방법을 또 한번 되새겨 주고, 구의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컸습니다.

단 한명의 어린이라도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연구단체 의원들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연구단체 활동 또한 이 마음이 잃지 않고 열정과 노력으로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2020년 12월 달서구의원 서민우

## 이 영 빈: 교통연구회를 마치며...

현대의 대도시 교통계획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보행자 중심보다는 차량 중심적 계획이었고, 안전성 보다는 경제성을 우선시 해왔다. 시간이 돈인 사회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은 지역경제 극대화 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경제적 논리의 근거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지역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단속카메라로 교통흐름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있다. 바로 시대적 요구가 비로소 안전중심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의 사고는 전국을 안전 불감증에서 일깨웠다.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는 김민식군을 가해차량이 치고 가면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의혹을 받고는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첫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부족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0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국가보조 사업이다. 구역의 지정은 광역단체장이 하되 유지관리 및 보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은 안전웬스, 과속방지턱, 블라드, 과속 및 주정차단속 카메라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책적 흐름에 따라서 안전웬스, 과속방지턱 중심으로 설치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과속 및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까지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정책사업이지만 여전히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시설보강은 부족한 실정이며 달서구도 예외는 아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다. 실제 무작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해서 10분만 서 있으면 무의식중에 30km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손쉽게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구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대구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775건으로 이전 해의 568건에 비해 36.4% 증가 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운전자의 안전주시의무에 대한 인식전환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책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 중 시설설치와 정책은 시민들에게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정차단속 카메라의 확대는 지역 내 턱 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규제로, 또 학교와 상권이 인접한 구역에서 주정차단속이 상권접근성 침해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왕복 6차로 도로에서 30km 속도제한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등 민생현장 바닥에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 교통연구회는 기초의회내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주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하기는 힘들었다. 주정차단속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서 국가위임사무로 지정되어 있고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규제완화 조례를 기초의회에서 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비한 안전시설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의견청취를 중심으로 부족한 시설의 보강과 이를 시행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정책적 제언에 목표를 두었다.

달서구는 타 구·군과는 비교적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가 잘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본적인 안전시설물 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를 위한 바닥신호등과 야간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의 흔적들을 엿 볼 수 있었다. 또, 송현초의 경우 어린이 보행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6m남짓의 보차혼용도로를 학교담장을 무너트리면서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이런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합작도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다. 바로 관주도적 행정시스템이다. 달서구는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민원을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이고 주민센터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의 민원접수창구이므로 아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은 손잡고 아이의 통학을 함께하는 학부모가 말하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가들이 모든 통학로 현장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없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다.

###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6	11,264	71	14,215
2017	10,960	54	13,433
2018	10,009	34	12,543
2019	11,054	28	14,115

### 전국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6	480	8	510
2017	479	8	487
2018	435	3	473
2019	567	6	589

자료출처: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본 교통연구회를 통한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는 매우 뜻 깊었다. 각 의원의 지역구내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달서구 전반의 실태를 연구용역을 통해 알 수 있었고 공통의 관심을 둔 의원과의 토론은 집단지성을 이끌어내기에 충분 했다.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나아간다는 동질감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교통연구회는 끝맺음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시설개선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운전자의 주시 의무에 대한 인식전환은 연구내용을 토대로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